

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화순**



생의학(Biomedical) 산업은 생명과학과 의학·약학을 종합적으로 연구·육성하는 신지식산업을 말한다. 이는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 2002년

설립한 생물산업진흥재단에 이어 6개 지자체 산하에 7개의 특화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생의학 산업벨트 조성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생의학 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등을 시리트로 엮는다.

바이오메디컬 집적...국내 최대 보건관광 도시 발돋움

〈集積〉

1 '테라피 타운' 꿈 키운다

최근 전남준 화순군수는 오는 2012년 화순이전이 결정된 전남대의대 외에 2015년까지 약대와 수의대를 화순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미 가동중인 녹십자 독감백신공장과 생물의약품 연구관련 5개 업체에 이어 전남대 약대와 수의대가 이전할 경우 화순은 생의학과 관련된 교육·연구·생산시설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테라피(Therapy)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화순군은 지난 5월 제 1회 광주·전남자치행정 홍보박람회에서 생명과 건강, 치유를 테마로 한 '테라피 타운' 개념을 선보인 바 있다. '테라피 타운' 구축사업은 생명공학기술(BT)산업과 보건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산업을 융합·발전시켜 치료와 오락·관광 중심도시로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다.

◇백신산업의 중심지=화순군은 지난 2005년 (주)녹십자를 유치하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듬해 공장착공에 들어간 녹십자는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3·4분기부터 독감백신 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독감백신원료 생산설비를 보유한 녹십자의 생산능력은 2천만도즈(1도즈는 주사 1회 분량)에 해당한다"며 "올해 3·4분기 화순공장에서 600만도즈의 독감백신 원료를 생산하고, 신종 플루 백신은 4·4분기에 대량생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국가결핵예방접종(BCG)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에 관한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관련시설 확충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안으로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2012년 임상시험을 거쳐 2013년부터 7만 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을 생산, 2030년에는 결핵퇴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현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를 내걸고 올해 세계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국내외는 물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 투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된 뒤 2037년까지 30년 동안 99만㎡의 부지에 5조6천여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인전·충북·강원 등 지자체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나, 화순군은 바이오산업과 메디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강점을 들어 사업유치를 확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전남대병원과 암센터, 전남대 의·생명과학

전남대의대·암센터에 녹십자 백신공장,獨 호퍼 연구센터 유치

헬스케어 체험장 만들고 한약재 산업 육성...치료·요양 중심지로



화순군이 생명과학과 의학·약학 등을 연계한 생의학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전남대의대, 독일 브라운 호퍼 한국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해 세계적인 수준의 테라피 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화순군 전경과 화순 전남대병원(위 왼쪽), (주)녹십자(위 오른쪽).

융합센터, 전남생물의약품연구원 외에 세계 3대 연구소의 하나인 독일의 브라운 호퍼 IME 한국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 등 생의학 R&D(연구개발) 벨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유병규 화순군 군정발전기획단장은 "현재 IME 한국연구개발센터 유치사업은 오는 7월 브라운 호퍼와 MOA(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2010년 정부예산에 20억원이 배정돼 있을 만큼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개원하게 될 노인전문병원도 사업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192개의 병상을 갖추고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와 복지의 통합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보건관광 모델 실현=화순군의 '테라피 타운' 육성사업은 치료만이 아니라 치유를 겸하는 보건관광(Health Tourism)산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지닌다.

보건관광산업의 핵심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약재 관련산업이다. 화순은 광주·전남지역 1만5천여 농가를 회원으로 보유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운영, 한약재의 적기공급을 통한 가격지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약재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획득을 서두르고 있다.

또 군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착공을 뜬다. 이 시설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 등 모든 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전국에서는 처음 문을 열어 올해 2기 수강생을 모집한 '한약초 대학'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약초를 재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아 아토피와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는 모후산 명품 숲길을 복원, 생태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완준 군수는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 회원 100여명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어 천년고찰 운주사 등 화순 관광명소와 모후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1년 완공될 만연산 헬스케어(Health Care) 체험장도 보건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야심작이다. 8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순읍 동구리 등 4개 지구 480ha에 들어설 이 체험장은 미래의 숲, 체육시설, 체험코스 등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건강타운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